**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**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[앞부분의 줄거리]** 해방 직후,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.  “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.” 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.  “어디?” 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.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. 액면 만 원짜리다. 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 “겨우 둔 만 원야?” 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홱 내던진다.  “내가 알우?”  “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. 그래 전,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,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, 그래 겨우 둔 만 원야? 엠병헐 자식, ㉠ 내가 엠피\*헌테 말 한마디문,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.”  “정종으루 가져와요?”  “내 말 한마디에, 죽을 눔이 살아나구, 살 눔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. 흥,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……. 증종 따근허게 데와. 날두 산산허구 허니.”  새로이 안주가 오고,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  하고 나서였다.  백 주사는 마침내, **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**를 꺼내었다.  백 주사의 아들 ㉡ 백선봉은,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ㆍ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,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,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,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,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,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. 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**남들**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,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. | | **[A]** | |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××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. 8ㆍ15 그날 밤,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 광목 여섯 필  고무신 스물세 켤레  지카다비 여덟 켤레  빨랫비누 세 궤짝  양말 오십 타  정종 열세 병  설탕 한 부대 | | **[B]** | |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이렇게 있었더란다.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, 만 원 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,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. | | **[C]** | | |  |  |  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,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,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,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,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,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. 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일변 고을에서는, 백 주사가,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, **동네 사람**한테 거만히 굴고, 작인들한테 팔 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,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,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,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하였다 | | **[D]** | | |  |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|  |  |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,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,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, 백선봉은 처가로,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. | | **[E]** | | |  |  |  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,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,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, ⓐ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,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. 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.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,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,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,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 “아, 백 주사 아니신가요?” 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.  자세히 보니,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삐뚤이  삼복이가 분명하였다.  “자네가, 저, 저, 방, 방…….”  “네, 삼복입니다.”  “아, 건데, 자네가…….”  “허, 살 때가 됐답니다.”  그러고는 ⓑ 내 집으루 갑시다,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었다.  의표하며, 집하며,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,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,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, ⓒ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. 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,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, ⓓ 또 한 번 어깨가 옴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. 그런 데다 이 녀석이,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, 심히 불쾌하였고, 그래서 ⓔ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. 그러나 참았다. 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.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, 분풀이와,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.  - 채만식, 『미스터 방』 -  \*엠피(MP) : 미군 헌병. |